

‘기본료 인하·가입비 폐지’ 놓고 이견 ‘통신비 인하’ 막판 진통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와 소비자, 정치권의 입장을 모두 만족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해 끝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통신비 인하 테스크포스(TF)의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고, 되도록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을 내려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방통위가 전날 공개하려 했던 방안은 ▲문자메시지 월 50건 무료제공 ▲청소년·노인 가입비 50% 인하 ▲소비자가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하는 모델형 요금제 도입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활성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단말기 매매가 가능한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본료·가입비 인하 방안이 빠져 있어 방통위는 한나라당으로부터 “국민의 기대는 물론, 당의 기대와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는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재검토에 나섰지만, 네트워크 투자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통신사업자와 ‘기본료 인하·가입비 폐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사이에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가장 큰 이유가 가입비와 기본료를 손대지 않았던 것인 만큼 방통위는 어떤 형태로든 두 요금에 대해 인하방안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기본료는 표준요금제를 기준으로 월 1만2000원이다.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기본료가 통신요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작년 통신3사가 기본료를 거둔 수익은 약 8조7000억원이며, 이는 전체 매출 약 22조8000억원의 38%가량을 차지한다. 가입비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새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바꿀 때 통신사에 내는 비용으로 SK텔레콤의 경우 3만6000원(부가세 별도), KT와 LG유플러스는 2만4000원이다.

가입비는 사실상 통신사의 가입비 유출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효과를 노리려면 가입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신사들은 기본료를 내리거나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비를 할인하면 “당장 막대한 이

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차세대 망 투자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익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차세대 망 투자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약 5098만명인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기본료를 1000원만 덜 받아도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 등이 체감하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애초부터 방통위와 통신사들이 가입비와 기본료를 손을 대지 못했던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가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후발 사업자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유행해 데이터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동통신(LTE) 등 차세대 망을 구축하는 데도 수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올해 설비투자 잠정 규모는 SK텔레콤 2조3000억원, KT 3조2000억원, LG유플러스 1조7000억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가입비 인하를 추가하거나 기본료 할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다. “2~3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고심을 거듭하자 업계에서는 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가 6월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SKT ‘베가 레이스’ 예약 가입 시작

SK텔레콤은 25일부터 세계 최초로 1.5GHz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 펌웨어 ‘베가 레이스’의 예약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베가 레이스’는 1.5GHz 듀얼코어 프로세서, 1GB DDR2 RAM 등의 최고 사양에 기반한 강력한 무선인터넷

및 멀티태스킹 성능이 특징이다. 2년 약정 올인원55 요금제 선택 기준 20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예약가입은 SK텔레콤 공식 온라인 판매처인 T스마트샵(www.ts-smartshop.co.kr)과 전국 T월드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말까지



‘베가 레이스’를 구매하는 고객은 T스마트샵 내의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3만원 상당의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를 받을 수도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co.kr’ 대신 ‘.한국’ 한글 도메인시대 개막

인터넷진흥원 25일부터 서비스

25일부터 ‘한글.한국’ 도메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원하는 한글 표현이나 사람이름, 상호를 그대로 인터넷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광주일보.한국’, ‘광주.한국’, ‘빛고을.한국’ 등의 인터넷 주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부·공공기관, 상표권자의 ‘.한국’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25일부터 시작한다.

정부·공공기관은 25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정식 또는 약어 명칭과 일치하는 기관명을 ‘.한국’ 도메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등록해 홈페이지와 연결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표명과 같은 한글 단어를 신청할 수 있고, KISA의 상표권 검증 등을 통해 오는 8월 16일까지 등록이 가능해진다. 복수 신청된 도메인은 7월 12일 추첨으로 등록자를 정해,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한국’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으면, 이후 제3자가 해당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메인 분쟁 조정 서비스로 도메인을 되찾을 수

있으나, 2~3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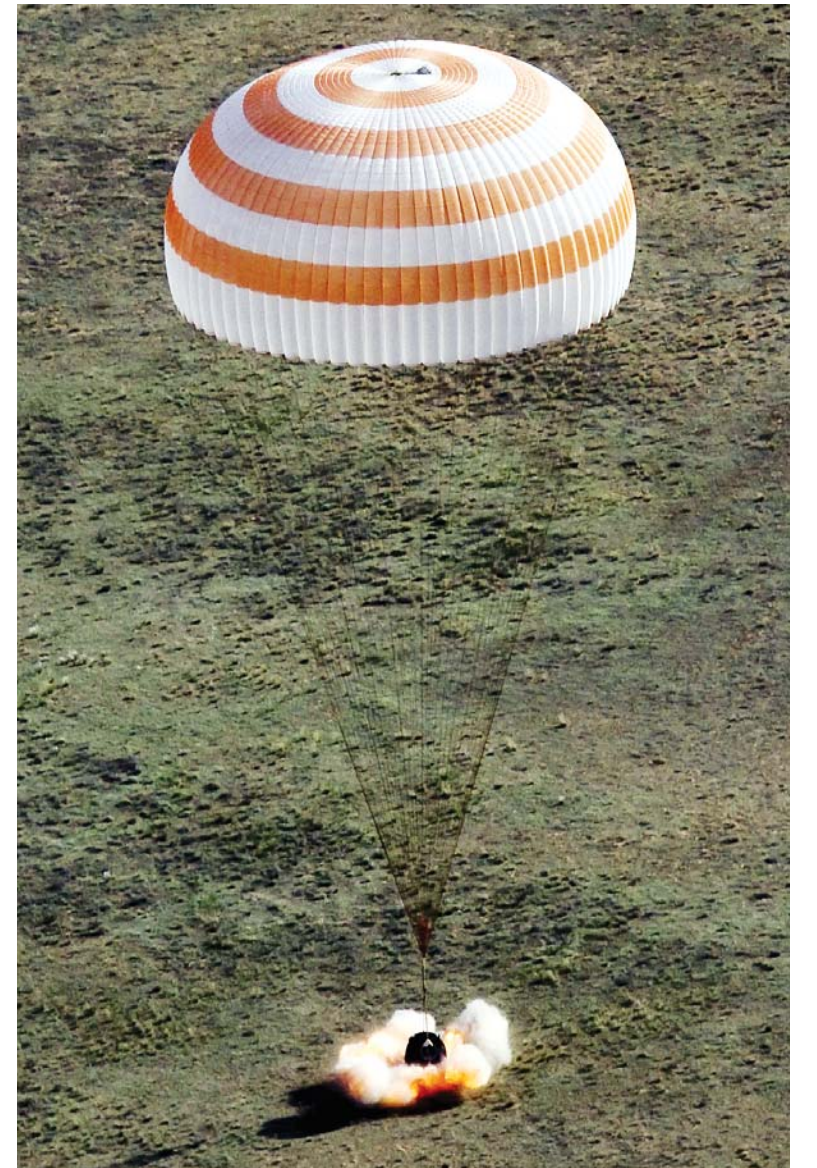
오는 8월 22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단어로 인해 신청인이 2명 이상인 단어는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등록한 신청자에 한해 공개추첨을 통해 등록자를 결정한다.

이번 한글 국가도메인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한글.com’과 같이 한글과 영문을 혼용해서 사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100% 한글로만 구성할 수 있어 어린이나 노인 등 영어 주소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인터넷 접근 환경이 쉬워질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http://’를 붙여야만 동작되는 문제, 한글이 영문으로 변환되는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 도메인 신청은 홈페이지 ‘도메인.한국’(또는 domain.kisa.or.kr)에 소개된 등록대행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 무사귀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근무한 캐서린 콜먼(나사), 드미트리 콘드리티프(러시아연방우주청), 파올로 내스폴리(유럽우주기구) 우주 비행사들을 태운 러시아 유인 우주선 ‘소유즈 TMA-20’가 24일 카자흐스탄의 제즈카잔 지역에 착륙하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근무한 캐서린 콜먼(나사), 드미트리 콘드리티프(러시아연방우주청), 파올로 내스폴리(유럽우주기구) 우주 비행사들을 태운 러시아 유인 우주선 ‘소유즈 TMA-20’가 24일 카자흐스탄의 제즈카잔 지역에 착륙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몸속 세포 관찰”

생명연구개발사업 박사팀 시스템 개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은 정봉현 박사팀이 스마트폰으로 몸속 세포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이미징 시스템을 개발, 상업화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팀은 몸속 세포와 결합해 영상신호를 내는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나노프로브)을 개발, 암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면역세포 내에 넣은 뒤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접근하는 영상을 얻고 같은 데이터를 실험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의 스마트폰 등으로 동시에 얻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은 새로운 세포 치료제

의 개발과 원격 진단 및 치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화학 및 재료 분야 최고권위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지’ 등에 소개됐다.

연구팀은 관련 기술을 국내외에 특허 출원하는 한편 ㈜유바이오메드스에 이전, 최근 제품을 출시했다.

정봉현 박사는 “앞으로 스마트 기기와 융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환경에서 바이오 분석 및 질병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늘지않는’ 은하 발견

NASA “내부에 ‘젊음의 샘’ 끌어 에너지 받아”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새로운 사진들을 통해 과학자들이 은하를 영원히 젊게 만들어 주는 ‘젊음의 샘’을 발견했다고 MSNBC 뉴스가 22일 보도했다.

미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의 공동사업인 허블망원경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약 8500광년 떨어진 처녀자리 은하단에 속하는 나선은하 NGC 5775의 측면 영상에서 뜨거운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무리를 발견했다고 22일 발표했다.

NGC 5775는 지구에서는 측면만 볼 수 있는 각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포착됐는데 연구진은 은하단에 속하는 나선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 있다.

이들은 “원반에서 나오는 고온 가

스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 무리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식으면 다시 원반으로 되돌아가는 일종의 거대한 ‘은하 샘’을 형성한다. 은하는 초신성 폭발로 인해 항상 새로운 가스를 공급받아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GC 5775에서는 이밖에도 특이한 현상이 관찰됐다. 즉 이 은하를 이웃 은하 NGC 5774와 연결하는 수소 가스 다리가 발견된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두 나선은하가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으며 통합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두 은하 중 어느 것에서도 아직은 은하 통합 전에 강력한 중력 붕괴에 의해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인 가스와 별의 이루어진 피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유전일식이 참치와 함께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점심 특선 17,000원

유전 특정식 25,000원
유전 특참치 35,000원

20여가지 음식이 준비된 고품격

점심특선 을 저렴하게 만나볼수 있습니다 가족모임, 귀한 손님 접대에는 맛있고 다채로운 고품격 유전일식이 으뜸입니다.

유전일식은 최고의 맛과 품격을 추구합니다

유전일식 중점사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제2순환도로 화순
← 두암지구 →

유전일식 예약전화
062-233-9911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53

약탕기 홍삼삼계탕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 주자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오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고가약오리탕 예약문의 **062)226-8254**
약탕기홍삼삼계탕